i-KIET 산업경제이슈

제219호 2026-19

발행일 2026년 5월 20일 | **발행인** 권남훈 | **편집인** 이두희 | **발행처** 산업연구원

중동발 위험 확산에 대한 일본·중국·러시아의 대응과 시사점

임소영 연구위원 | **빙현지** 전문연구원 | **김계환** 선임연구위원 | **최정환** 부연구위원 | **박소희** 연구원

- **미국-이란 전쟁은 전 세계 지정학적 변동성을 가속화하는 충격**
  - 각국의 에너지 의존 구조와 대체 공급원 보유 여부에 따라 국가별로 상이한 영향과 대응방식
- **(일본)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에너지 구조를 보이며, 범정부 차원의 비축유 방출, 대체 조달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단행**
  - 1970년대부터 에너지 공급원의 다각화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민·관 협력을 실시, LNG 수입원은 다변화를 실현(중동 11%)한 반면 석유 수입은 여전히 높은 중동 의존도(90% 이상)
  - 이번 분쟁 이후 범정부 차원의 비축 방출과 대체 조달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단행하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자재 수입원 다각화 논의와 안보전략 재검토 논의 가속화
- **(중국) 중동 질서 회복과 역내 평화를 지지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 공급망 자립, 위안화 영향력 강화 등 독자적 전략방향 모색**
  - 에너지 수입선 다각화와 국내 에너지 기반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충격
  - 단기적으로는 유가 임시 통제, 상업 비축유 사용 승인, 에너지·산업재의 수입원과 수송로 조정 등을 단행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청정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자립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가속화 모색
- **(러시아) 경제제재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러시아는 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량 증가로 국가 재정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중심의 에너지 시장 재편 가속화 전망**
  - 중동산 에너지·원자재의 대체 공급국으로서 수혜가 기대되면서 러-우 전쟁 공세 강화와 성장률 제고가 예상되는 한편 물류 차질에 따른 충격 발생 예상
  -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의 아시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세력권 확장도 기대
- **종전 이후에도 구조적인 지정학적 변화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국은 공급망의 지리적 다각화를 넘어 복합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으로 대응 필요**
  -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대체 물류·수송로 확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안보 전략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며,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전략적 포지셔닝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

핵심 주제어: 미국-이란 전쟁,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란 전쟁은 전 세계 지정학적 변동성을 가속화하는 충격으로 작용

- **세계 경제는 반세기에 걸친 에너지 전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에 대한 구조적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 취약성을 전면적으로 노출**
  - 2025년 기준 글로벌 1차 에너지 소비에서 수송·제조업·발전의 근간 원료인 석유와 천연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55%[1]
    - 전 세계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20%, LNG 물동량의 약 25%가 통과하는[2]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봉쇄는 글로벌 에너지 수급의 핵심 병목을 직격
  - 이번 사태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질적으로 다른 점은 가격 급등과 물량 차질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충격이며, 그 파급 범위가 에너지를 넘어 산업재·농업·첨단산업 전반에 걸쳐 있다는 점
    -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LNG뿐 아니라 비료(해상)의 30%, 황(해상)의 약 50%, 메탄올의 약 3분의 1, 요소의 46%가 통과하는 에너지·산업재의 핵심 수송로이며, 해협 봉쇄로 이들 품목의 공급이 동시에 교란[3]
    - 에너지 가격 상승은 석유·가스 기반 원료 가격을 끌어올려 에틸렌, 플라스틱, 암모니아 등 석유화학 제품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며, 제조 원가·물류비 상승을 거쳐 최종 소비자 물가와 인플레이션으로 귀결
- **이러한 충격의 강도와 양상은 각국의 에너지 의존 구조와 대체 공급원 보유 여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동일한 위기가 국가별로 위협 또는 기회로 상이하게 작용하면서 대응방식에 있어서도 차이**
  - 중동 위험은 더 이상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세력 경쟁의 연장선에서 해석해야 하며, 각국은 자국의 에너지 의존도, 외교 관계, 대외 전략에 따라 중동지역의 위험을 상이한 관점에서 인식
  - 중동지역의 상시적인 정세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원유와 산업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주요 산업 국가들은 이번 이란 사태 이전부터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대중동 전략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대외 전략에 반영
  - 반서방 질서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단기적 충격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장기적으로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다극화 체제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물류, 자원 공급망 전략의 재정비를 위해 대응
- **본 연구는 미국-이란 전쟁에 대해 상이한 여건에 있는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을 분석하고, 전쟁 이후 재편될 에너지·물류·자원 지형의 변화를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전쟁의 국별 영향을 에너지 수급, 공급망, 물류·운송체계, 국가안보·지정학적 전략 등의 관점에서 분석
  - 중동에 대한 자원 의존도가 불균형적으로 높고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는 일본, 그리고 반서방 블록을 형성하면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상대적으로 가능한 중국·러시아의 정책 변화를 분석하고 전망

(일본)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일본은 범정부 차원의 비축유 방출과 대체 조달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를 통해 미국-이란 전쟁 대응

- **일본의 에너지 공급은 수입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그중에서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는 90% 이상으로 절대적[4]**
  - 일본의 1차 에너지 공급의 80%가 화석연료로 구성되며, 석유(34.8%), LNG(20.8%), 석탄(24.4%)이 큰 비중을 차지

---

1 https://www.iea.org/reports/global-energy-review-2025(검색일: 2026. 5. 8).
2 "Strait of Hormuz" Factsheet(2026. 2)(검색일: 2026. 5. 8).
3 https://www.weforum.org/stories/2026/04/beyond-oil-lng-commodities-impacted-closure-hormuz-strait/(검색일: 2026. 4. 29).
4 第1回 中東情勢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2026. 3. 24), 経済産業省 제출 자료, 資源エネルギー庁(2025), "日本のエネルギー2025" 등 참고.

- 일본의 원유 수입량은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236만 배럴로 UAE(43.3%)와 사우디아라비아(39.4%), 쿠웨이트(6.2%), 카타르(4.2%) 등 중동 의존도가 90% 이상이며, 수입 석유 중 93%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
  - 석유제품도 휘발유, 제트연료유, 등유, 경유 등은 수입한 원유를 국내에서 정제해 생산하는 비중이 높지만, 화학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는 중동으로부터 약 47% 수입
- 반면, LNG는 호주(39.7%), 말레이시아(14.8%), 러시아(8.9%), 미국(6.9%) 등이 주요 수입국이며, 중동 의존도는 약 10%대로 비교적 낮은 편

- **일본은 1970년대부터 중동에서의 불안정한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이 가져올 수 있는 에너지 안보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기본 틀 마련**
  - 1973~1974년과 1978~1982년의 두 차례 석유 위기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 더불어 일본의 에너지 공급망이 가진 취약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으며, 일본이 화석 연료를 포함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기본 틀을 마련하게 된 계기
    - 자원에너지청 설립(1973), 석유수급적정화법(1973), 석유비축법(1975년), 에너지절감법(1979년), 석유대체에너지법(1980) 등 수립
  - 2015년 일본에서 신안보법제가 도입되던 당시, 아베 신조 수상이 국회에서 일본이 해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사태'의 예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공급 중단을 언급할 만큼 일본은 중동 사태로 인한 일본의 에너지 안보 위험을 중대 위험으로 인식[5]

- **과도한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공급원을 다각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민·관 협력 실시**
  -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석유 수입은 여전히 높은 중동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LNG는 수입원의 다변화를 실현하여 2013년 29%였던 중동으로부터의 LNG 수입 비중이 2025년 11%로 감소[6]
  - (북미) 일본 주요 기업들은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 내 셰일가스 자산에 투자하거나 오프테이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일본무역보험(NEXI) 등 일본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지원[7]
    - 2018년 5월 처음으로 장기 공급계약에 따라 미국산 셰일가스 LNG를 수입한 이후 도쿄가스, JERA 등 일본 기업들이 대규모 에너지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8]
    - 캐나다에 대해서도 캐나다 남서부에서 추진되는 LNG 캐나다 프로젝트에 미쓰비시가 투자[9]
    - 중동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트럼프 2기에 부상하고 있는 알래스카 LNG 개발에 대해서도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 (러시아) 사할린 및 야말반도 등을 중심으로 LNG 개발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 LNG 수입의 약 8~9%를 공급하는 사할린-2 프로젝트는 미쓰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이 총 22.5%의 지분을 확보, 2009년부터 LNG를 수입[10]
    - 사할린-2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투자 지분을 현재까지 유지

---

5 제189회 국회 본회의 회의록,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a.nsf/html/kaigirokua/000118920150216006.htm(검색일: 2026. 5. 7).
6 https://www.csis.org/analysis/what-are-implications-iran-conflict-japan(검색일: 2026. 4. 20)
7 資源エネルギー庁(2018. 6. 12), "2018年5月、シェール革命」が産んだ天然ガスが日本にも到来";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資源・燃料部(2025. 6. 30), "資源・燃料政策の現状と今後の方向性" 등 참고.
8 日本経済新聞(2025. 11. 26), "東京ガス、米国産LNGの調達拡大 年100万トンを2030年から20年契約", 日本経済新聞(2025. 10. 23), "JERA、米国初のシェールガス田権益を取得 2300億円で" 등 참고.
9 三菱商事, "カナダ天然ガス事業", https://www.mitsubishicorp.com/jp/ja/explore/project-stories/lng-canada(검색일: 2026. 5. 7).
10 経済産業省 資源エネルギー庁資源・燃料部(2023. 2. 22), "資源・燃料政策の現状と今後の方向性"; 資源エネルギー庁(2018. 5. 31), "石油から再エネまで、あまり知らないロシアと日本のエネルギー協力" 등 참고.

- (호주) 호주는 일본의 최대 LNG 수입국이며, 2018년부터 익시스(Icthys) 가스전에 INPEX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 에너지 기업들이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G), JBIC 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 및 생산[11]

- **중동 사태가 일본 경제에 미칠 주된 부정적 영향은 물가 상승과 국내 생산 위축, 그리고 물류 및 운송망 교란 등의 경로로 발생 예상[12]**
  - 중동 사태가 일본 경제에 미칠 악영향은 주로 ①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과 그로 인한 소비 위축, ② 국내 생산을 위한 원료 및 중간재 공급 제약에 따른 국내 생산 활동 위축, ③ 물류 및 운송 네트워크 교란 등을 통해 발생 예상
  - 첫 번째의 경우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실질 구매력 감소, 그리고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과 설비투자 위축이 발생하면 일본의 실질 GDP는 연 최대 0.8%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
    - 고유가가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경우에 다카이치 총리가 제안한 다수의 정책들이 상당한 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 다대[13]
  -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및 나프타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그 결과, 국내 제조업의 가치사슬에서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경로
    - 원유 및 나프타 공급이 10% 감소할 경우 국내 생산액의 약 0.8%, GDP의 0.6%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
    - 업종별로는 석유 및 석탄, 전력, 화학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 이외에도 플라스틱과 고무, 철강 등을 중심으로 생산 감소가 클 것으로 예상
  - 세 번째 경로는 주로 물류 및 운송 등에서의 교란으로 특히 일본 자동차의 대중동 수출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일본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비축유 방출과 대체 조달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등을 중심으로 석유 및 연관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추진**
  - 미국-이란 전쟁 개전 이후 일본 내각은 3월 24일부터 약 주 1회 외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방위성이 참여하는 '중동 정세에 관한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대응 총괄[14]
  - (원유 비축 방출) 일본은 세계 최대 수준인 원유 비축의 방출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하지 않는 공급원으로부터 수입 확대를 병행함으로써 원유 수입의 93%를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응[15]
    - 일본의 원유 비축은 ① 정부 비축(146일분), ② 민간 비축(101일분), ③ 산유국 공동 비축(7일분)[16]의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며[17] 2026년 1월 기준 7,289만 km, 약 8개월분 비축[18]
    - 민간 비축 의무량의 일시적인 인하(70일 → 55일) 및 국가/공동 비축유의 방출 조치로 5월까지 민간 비축 15일분 및 국가 비축유(1차 30일분 + 2차 20일분), 그리고 공동비축유 6일분 방출 예정[19]
  - (대체 조달) 미국과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중동산 대체 조달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5월에는 필요한 원유의 60% 수준까지 대체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20]
    - 중동산 원유의 경우 얀부항(사우디), 푸자이라항(UAE)을 활용하는 호르무즈 해협 대체 루트의 확대 추진
  - (유가 안정화) 3월 19일부터 휘발유 소매 가격을 전국 평균 리터당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보조금 지급

---

11 Inpex, "Ichthys LNG", https://www.inpex.com.au/projects/ichthys-lng/(검색일: 2026. 5. 7).
12 MUFG(2026. 4. 21), "イラン情勢の緊迫化が日本経済に及ぼす影響".
13 https://www.csis.org/analysis/what-are-implications-iran-conflict-japan(검색일: 2026. 4. 20).
14 内閣官房, "中東情勢に関する対応", https://www.cas.go.jp/jp/seisaku/chyutoujyousei/index.html(검색일: 2026. 5. 7).
15 https://www.csis.org/analysis/what-are-implications-iran-conflict-japan(검색일: 2026. 4. 20).
16 일본 국내 탱크에 산유국의 국영석유회사가 보유.
17 https://www.csis.org/analysis/what-are-implications-iran-conflict-japan(검색일: 2026. 4. 20).
18 資源エネルギー庁(2026. 4. 13), "今こそ知りたい、日本の「石油備蓄」のしくみとは?".
19 第2回 中東情勢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2026. 3. 31), 経済産業省 제출 자료 참고.
20 第5回 中東情勢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2026. 4. 24), 経済産業省 제출 자료 참고.

- 경유, 등유, 중유는 휘발유와 동일하게, 항공기 연료는 40%를 보조해 4월 말 현재 가솔린 등은 30.9엔/리터를, 항공기 연료는 12.3엔/리터를 보조[21]

– (유통 원활화) 석유 공급량의 직접적인 부족 이외에도 공급망상의 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 문제를 심화한다는 진단하에 정부는 중동 사태 공급망 대응 TF에서 인정하는 중요 시설에 대해 원매업자(정유사)가 중간 도매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도록 요청[22]

– (나프타) 나프타의 경우 기존 조달 물량 및 국내 수입분, 중간 단계 및 하류 제품에 대한 재고 등을 합쳐 4개월분을 확보[23]하였으며 미국·알제리·페루 등 비중동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을 확대[24]하고 있으나, 중동 사태의 장기화 시 연관 산업에서 생산 가격 상승이 불가피

- 예컨대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시너, 페인트 등의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으로 건설업에서 생산에 일부 어려움
- 다만 시너 등은 당장의 절대적인 공급량 부족보다 공급망의 특정 지점에서의 병목현상으로 인한 공급 차질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중

- **중동 분쟁은 일본의 장기적인 에너지·원자재 수입원 다각화 논의를 심화하는 한편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안보 전략 재검토를 모색하는 계기**

– 미국-이란 전쟁은 일본이 에너지 및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수입원 다각화를 가속화할 계기 제공

- 석유 및 나프타 등 공급 차질과 관련, 일본 정부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 안정적인 공급 확보를 위한 특정 중요 물자에 이들 물자들이 포함된 화학물질 전반의 추가 검토[25]
- 일본 LNG 수입의 약 10%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LNG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미국 제재 예외 조치의 연장 확보[26]
- 2026년 3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에너지 수송 경로 다변화를 위해 일본 내 미국산 원유 공동 비축 프로젝트를 제안하였으며, 알라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 투자 확대 등 미·일 에너지 안보 협력 촉진 전망[27]

–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중동으로 국방 자원을 이동하면서 일본의 안보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일본 자위대 역할 재정립 등 안보전략 재검토 논의 촉발[28]

- 평시 호르무즈 해협 항행 안전 지원과 기뢰 제거 등 비전투 임무 중심의 자위대 역할 확대와 필요성 설득의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
- 국가안보전략 재검토 및 방위력 강화 추진, 핵무기 반입 금지 원칙 재검토 등 미일 안보협력 확대 준비[29]

(중국) 중동 평화 지지의 외교노선을 추구하는 중국은 장기적으로 청정에너지 전환, 공급망 자립, 위안화 영향력 강화 등 독자적인 전략방향 모색

- **중동지역에 대한 중국의 경제안보 전략 방향은 지속적인 외교적 노력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공급망 및 경제 위기에 대한 선제적 대비이며, 중동 질서 회복과 역내 평화 지지**

– 장기적 대중동 전략 차원에서 중국은 경제협력에는 적극적이고 외교안보에서는 '평화외교노선' 추구

---

21 資源エネルギー庁 "中東情勢を踏まえた緊急的激変緩和措置", https://nenryo-teigakuhikisage.go.jp/(검색일: 2026. 4. 29).
22 第4回 中東情勢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2026. 4. 16), 経済産業省 제출 자료 참고.
23 第3回 中東情勢に関する関係閣僚会議(2026. 4. 10), 経済産業省 제출 자료 참고.
24 https://www.japantimes.co.jp/news/2026/05/05/japan/politics/naphtha-agriculture/(검색일: 2026. 5. 7).
25 日本経済新聞(2026. 4. 15), "石油由来の化学品を重要物資に　経産省検討、ホルムズ封鎖で供給不安".
26 https://www.csis.org/analysis/what-are-implications-iran-conflict-japan(검색일: 2026. 4. 20).
27 https://www.csis.org/analysis/what-are-implications-iran-conflict-japan(검색일: 2026. 4. 20).
28 https://www.csis.org/analysis/what-are-implications-iran-conflict-japan(검색일: 2026. 4. 20).
29 https://engelsbergideas.com/essays/the-iran-war-through-asias-eyes/(검색일: 2026. 5. 8).

- 미국-이란 전쟁 이전부터 중국은 평화 공존, 국가 주권 존중, 내정 불간섭과 같은 중국 외교의 기본 원칙에 기반을 두고 중국이 중동지역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가임을 피력
  - 시진핑 국가주석은 집권 초기부터 중국이 중동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고 발전과 산업화를 촉진하는 '동반자'임을 강조[30]
- 표면적으로는 직접 전쟁에 개입하거나 과도한 반응을 내놓는 것을 회피하는 '전략적 관찰자'의 태도를 고수하면서 휴전과 전쟁 종식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는 한편, 중동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중동과 협력[31]할 의사 공식 표명

-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리스크는 중국의 산업·경제에 부문별로 차별화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입선 다각화와 국내 에너지 기반 덕분에 충격이 일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한적**
  - (에너지) 2025년 기준 중국은 에너지 자급률이 85%에 달하고, 중동 원유 수입 비중이 약 42%, 호르무즈 통과 원유가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7%에 불과하여 이번 전쟁에 따른 거시적 충격은 제한적[32]
    -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물량이 해상 원유 수입의 약 45~50%에 달하지만, 높은 에너지 자급률과 호르무즈 통과 원유의 한정적인 물량으로 인하여 충격 흡수 여력이 상대적으로 양호[33]
  - (석유화학·정유) 그러나 석유 가치사슬 내부에서는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취약성이 커지는 구조 노출
    - 원유는 14억 배럴의 비축유와 러시아·브라질 등 대체 공급원으로 단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반면, 나프타·에탄 등 석유화학 원료는 비축이 거의 없고 전쟁 전 수입의 50% 이상을 페르시아만에 의존하여 영향이 상당[34]
    - 상류 단계에서는 이란산 할인 원유의 최대 수입 창구인 산둥성 독립 정유사(티팟)가 공급 차단과 미국 제재의 이중 압박에 직면하고[35], 국영 정유사도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의 소매가 인상폭 억제와 정제유 수출 중단 지시로 수익성 악화에 직면[36]
    - 하류 단계에서는 나프타 공급 차질로 에틸렌·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 석유화학 기업들은 미국산 에탄 수입을 사상 최고 수준(4월 80만 톤, 월평균 대비 60% 증가)으로 확대하고 석탄화학 역량을 활용하여 대응[37]
  - (산업재) 석유화학 원료 외에도 헬륨, 황 등 호르무즈를 경유하는 산업재의 공급 차질이 중국 산업 전반에 파급
    - 헬륨은 세계 공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는 카타르의 생산·수송이 중단되면서 중국 내 가격이 공업용 4~5배, 반도체용 7~9배까지 급등하였으며, 해협이 재개통되더라도 공급 정상화에 4~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38]
    - 반면 흑연 등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품목은 중동발 위기의 영향이 미미한 등 품목별로 영향이 차별화
  - (물류) 중국-유럽 화물열차 등 육상 대체 수송로가 부분적 완화 역할을 하고 있으나 해상 물류 대비 처리 용량이 제한적이며, 전쟁 종결 이후에도 물류 정상화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호르무즈 봉쇄와 후티의 홍해 공격 재개가 겹치면서 중국발 해상 물류의 주요 경로 두 곳이 동시에 차단
    - 주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희망봉 우회로 전환함에 따라 아시아-유럽 항로에 10~14일의 추가 운항 시간이 발생, 스폿 운임 상승(전쟁 전 대비 3~4배까지 급등[39])과 납기 압박으로 수출 기업 부담 증가[40]

---

30 中国政府网(2016. 1. 22), https://www.gov.cn/xinwen/2016-01/22/content_5035442.htm(검색일: 2026. 4. 24).
31 外交部(2026. 3. 8), https://www.mfa.gov.cn/wjbz_673089/xghd_673097/202603/t20260308_11870443.shtml(검색일: 2026. 4. 27).
32 https://warontherocks.com/how-does-the-iran-war-affect-chinas-energy-security/(검색일: 2026. 5. 8).
33 https://warontherocks.com/how-does-the-iran-war-affect-chinas-energy-security/(검색일: 2026. 5. 8).
34 https://www.straitstimes.com/business/economy/iran-war-deepens-chinas-dependence-on-us-for-niche-gas(검색일: 2026. 5. 8).
35 https://home.treasury.gov/news/press-releases/sb0476(검색일: 2026. 5. 8)
36 https://www.cnbc.com/2026/03/15/price-caps-and-stairs-how-nations-are-coping-with-the-iran-oil-shock.html(검색일: 2026. 5. 8).
37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4-20/iran-war-deepens-china-s-dependence-on-the-us-for-niche-gas(검색일: 2026. 5. 8)
38 新浪财经(2026. 4. 28), "氦气狂飙：月涨9倍", https://finance.sina.com.cn/wm/2026-04-28/doc-inhvzmye8562398.shtml(검색일: 2026. 4. 30).
39 https://carraglobe.com/strait-of-hormuz-closure-2026/(검색일: 2026. 5. 8).
40 观察者网(2026. 4. 30), "海流：全球航运格局，已经回不到从前了"; 金融界(2026. 4. 3), "霍尔木兹海峡航运受阻全球航运成本急剧飙升 业内人士：目前运费已涨了11倍到12倍" 등 참고.

- **미국-이란 전쟁에 대한 단기적 대응으로 중국은 에너지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 임시 통제, 상업 비축유 사용 승인, 에너지와 산업재의 수입원과 수송로 조정 등의 조치 단행**
  - 2026년 3월에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국내 정제유 가격에 대한 임시 통제 조치를 발표하고 성시(省市)별로 조정된 톤당 가격을 공시
  - 2026년 4월, 중국 정부는 국영 정유사의 상업 비축유 사용 승인
  - 카타르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헬륨은 제2의 수입국인 러시아가 2026년 4월부터 헬륨 임시 수출통제를 시행[41]하면서 중국 내 일부 기업들이 장기 계약을 통해 단기 수급 충격을 완화[42]
  - 암모니아는 중국 내에 풍부한 석탄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함으로써 중동발 위험을 상쇄
  - 중국-유럽 화물열차와 같은 육상 수송로로 해상 수송로를 대체하여 물류 및 수출 압력을 부분적으로 완화
- **중장기적으로 이번 사태는 중국이 추진해 온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자립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동시에 그 가속화를 촉발**
  - (에너지) 중국은 아시아 국가 중 이번 에너지 충격에 가장 잘 대비된 상황이며, 풍부한 석탄 발전 역량이 단기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진행 중인 에너지 전환이 향후 충격에 대한 취약성을 더욱 낮출 것으로 전망
    - 중국은 수십 년에 걸쳐 전쟁 개시 시점 기준 약 14억 배럴 규모의 전략·상업 비축유를 확보하고, 러시아·중앙아시아 육상 파이프라인을 구축
    - 중국은 세계 석탄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산업과 전력 시스템을 구동하는 석탄의 거의 전량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있어 필요시 석탄 가동률을 높여 에너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구조적 완충력을 보유[43]
    - 중국은 그동안 원유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태양광, 풍력, 에너지 저장 등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는 '제15차 5개년 규획'에서도 핵심 과제로 반영되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산업재) 갈륨·텅스텐·흑연 등 핵심 광물 수출통제와 결합하여[44], 에너지 전환에서의 기술 우위와 산업재 공급망에서의 지배적 위치를 중장기 전략적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방향이 더욱 공고화될 전망
    - 2026년 4월부터 러시아의 헬륨 임시 수출통제가 시작된 가운데 중국은 헬륨 자체 생산과 추출 기술 국산화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45]하고 있으며, 텅스텐과 흑연과 같이 중국이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이중용도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통제[46]를 지속적으로 유지
    - 중국은 기존에 식량안보 차원에서 요소비료 수출을 제한해왔으나, 호르무즈 봉쇄로 중동산 황과 비료 공급이 차단되자 2026년 3월 질소-칼륨 혼합 비료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하고, 5월부터는 황산 수출까지 중단하는 등 통제를 단계적으로 강화[47]
  - (금융)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의 세계 최대 소비국이자 수입국으로 부상한 중국은 자체적으로 구축한 국경 간 위안화 국제결제시스템(CIPS)을 강화하고 확대된 브릭스(BRICS 플러스) 차원에서 디지털 결제 시스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달러 패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페트로 위안화'를 준비 중
    - 이번 사태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통행료를 위안화와 암호화폐로 징수한 것은 달러 우회 결제가 실제 분쟁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중국이 추진해 온 CIPS 강화와 에너지 교역의 탈달러화 흐름에 현실적 동력을 부여

41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imposes-temporary-export-controls-helium-2026-04-14/(검색일: 2026. 5. 14).
42 证券日报(2026. 5. 13), "金宏气体：本年度公司氦气长协合同锁定的采购规模较2025年实现明显增长", https://baijiahao.baidu.com/s?id=1865080166534804133&wfr=spider&for=pc(검색일: 2026. 5. 14).
43 https://carnegieendowment.org/posts/2026/04/chinas-energy-security-doesnt-run-through-hormuz-but-through-the-electrification-of-everything(검색일: 2026. 5. 8).
44 박소희(2025), "중국, 핵심광물 관련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발표", 「월간 KIET 산업경제」, 2월호, p. 88.
45 新浪财经(2026. 5. 12), "别焦虑了！氦气"国产替代"已就位", https://finance.sina.com.cn/roll/2026-05-12/doc-inhxrshi8295866.shtml(검색일: 2026. 5. 14).
46 박소희(2025), "중국, 핵심광물 관련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 발표", 「월간 KIET 산업경제」, 2월호, p. 88.
47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hina-restricts-fertiliser-exports-further-crimping-war-tightened-supply-2026-03-19/(검색일: 2026. 5. 8).

* 2025년 9월 기준 CIPS 적용 국가는 중동 산유국을 포함해 189개국[48]으로, BRICS 플러스 차원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검토와 함께 달러 중심 에너지 교역 질서에 대한 대안 모색이 병행 진행 중

– (대중동 전략) 이번 전쟁은 중국의 일대일로이니셔티브(BRI)의 중동 핵심 거점이었던 이란의 기능을 약화시키면서 중국의 대중동 경제협력 전략의 재조정을 촉발

· 중국의 BRI는 사우디·UAE·이집트 등 걸프 국가에 대한 에너지·인프라 투자를 확대

· 이란은 중앙아시아와 중동·유럽을 연결하는 육상 회랑의 지리적 연결 거점으로 기능하였으나 전쟁으로 인프라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안정적 거점으로서의 역할 제약

· 이번 전쟁으로 이란 경유 육상 회랑의 안정성이 훼손되면서, BRI는 단일 통합 네트워크에서 중앙아시아·러시아 경유 및 동남아 해상 루트 등 지역별 분산형 구조로 재편될 전망[49]

· 동시에 중국은 북아프리카(알제리·모로코·이집트)와의 에너지·인프라 협력을 강화하여 걸프 의존도를 낮추는 한편, 전후 이란 재건에서 BRI를 활용하여 중동 내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구상도 병행

(러시아) 반서방 블록을 주도하는 러시아는 유가 상승과 원유 수출물량 증가로 단기적으로 국가 재정 확대 효과를 누리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중심 에너지 시장 재편 가속화 전망

•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하여 중동산 에너지·원자재의 대체 공급국으로서의 수혜가 기대되는 동시에 물류 차질에 따른 충격 발생 예상**

– (에너지) 우크라이나 전쟁과 서방의 경제제재에 따라 원유 수출량과 수익이 감소하던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하여 반사이익 기대

· 석유 및 가스 가격 상승으로 수출, 무역수지 흑자와 재정 수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가격 효과에 더하여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미국의 제재 완화로 수출 물량 확대도 기대

* 유가 급등의 결과로 러시아의 최대 단일 석유세인 광물추출세의 수입은 4월에 90억 달러로 두 배 증가 전망[50]

· 중국, 인도 등 대러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던 기존 고객은 물론 일본,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 수요 증가[51]

– (질소 및 비료)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일부 화학시설의 파괴로 인한 중동산 질소와 비료의 생산 감소와 공급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으로 암모니아, 요소, 칼륨 등 비료 생산 대국인 러시아의 비료 수출 수익 증가 예상[52]

– 전자 산업용 희귀가스인 헬륨, 자동·건설 산업에 사용되는 알루미늄에 대해 중동 공급을 대체하는 러시아의 수출 증가[53]

–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 러시아에서 인도까지 약 7,200km 길이를 수로와 철도로 연결한 복합물류망 INSTC를 통한 물류 운송에 차질 가능

· INSTC는 러시아가 석탄, 곡물, 석유제품, 화학제품, 목재제품을 수출하고, 식료품, 건축 자재, 시멘트, 철강 압연제품, 자동차 부품, 합성섬유, 컴퓨터 장비 등을 수입하는 경제제재 우회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 3,000만 톤에 육박하는 화물 운송량 기록[54]

---

48 人民财经网(2025. 9. 17), "CIPS业务覆盖189个国家和地区", https://www.peoplecen.com/html/2025/jinr_0917/22541.html(검색일: 2026. 5. 4).
49 https://jstribune.com/the-war-with-iran-is-forcing-china-to-rethink-its-road-and-belt-initiative/(검색일: 2026. 5. 8).
50 https://www.chathamhouse.org/2026/04/iran-war-has-been-economic-gift-putin(검색일: 2026. 4. 24).
51 https://economictimes.indiatimes.com/industry/energy/oil-gas/theres-no-other-choice-war-hit-asian-buyers-grab-russian-oil/articleshow/129941801.cms(검색일: 2026. 4. 29).
52 https://www.themoscowtimes.com/2026/03/26/russia-eyes-new-windfall-as-iran-war-blocks-global-fertilizer-supply-a92342(검색일: 2026. 4. 29)
53 Jacques Sapir(2026), "Conséquences économiques de la guerre contre l'Iran (partie 2)", Fréquence Populaire; https://www.fpop.media/
54 Jacques Sapir(2026), "Conséquences économiques du conflit au Moyen-Orient et l'impact sur l'économie de la Russie(Partie I)"; Fréquence

- INSTC의 상당 부분이 이란을 통과하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주요 수입 부품의 가격 상승, 배송 지연 등의 영향에 직면하고 있으며 물류에 차질 발생 가능

- **단기적으로 이란 전쟁발 유가 및 산업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가 재정 수입 확대로 러-우 전쟁 공세 강화와 성장률 제고 기대**
  - 러시아는 가격 상승을 기회요인으로 이용하기 위해 중국, 인도 등 아시아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경제제재로 인한 디스카운트 축소, 해상 운송망('그림자 선단') 강화로 수익 극대화 추진
    - 전쟁 전 배럴당 50달러 선에서 거래되던 러시아산 원유는 평균 가격이 100달러에 육박하여, 2026년 러시아 예산 작성 시 책정된 배럴당 59달러에 비해 훨씬 높은 가격으로 거래[55]
  - 전쟁 장기 시나리오[56]의 경우 러시아 연방 예산 수입이 2025년 11월 5,345억 달러에서 6,48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지출 확대를 위해 재정적자를 503억 달러로 유지할 경우에 러시아 정부는 1,139억 달러의 추가적인 지출 여력 확보 가능
    - 전쟁 장기 시나리오에서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은 예외적인 상승 전망(1.2% → 2.0%)[57]

〈표 1〉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 시 러시아 연방 예산 예측

단위: 십억 달러, %

항목	2025년 11월 계획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
연방 예산 수입	534.5	648.5
연방 예산 지출	584.8	584.8
석유가스부문 예산 수입	118.4	213.0
석유가스부문 예산 수입 비중	22.1%	32.8%
재정 적자	-50.3	63.7
지출 확대 잠재력(재정적자 예상대로 유지 시)	0.0	113.9
지출 확대 잠재력(연방 예산 대비 비중)	0%	19.5%

자료: J. Sapir(2026), "Conséquences économiques de la guerre contre l'Iran".
주: 환율은 1달러=75.36루블 적용.

-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원자재 시장 중심으로 '아시아로의 전환 전략(Pivot to Asia)' 가속화 전망**
  - (석유·가스) 2010년대 초반에 대두된 후 러-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제재로 구체화된, 러시아의 아시아 중심 에너지 수출 시장 재편이 더욱 가속화
    - 러시아 에너지 전략 2030, 2035에는 아시아 중심 에너지 시장 재편 전략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로 수출 비중 확대, 동시베리아, 사할린 등 동부지역 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파워 오브 시베리아(Power of Siberia) 가스관, 북극항로 개발, LNG 비중 확대, 그리고 중국, 인도, 동남아 등 아시아 주요국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포함[58]
  - (천연가스) 러-중 협력 프로젝트인 '파워 오브 시베리아 2(PoS-2)' 가스관 건설을 당초 예상보다 앞당기기로 하는 등 러-중 천연가스 협력 강화[59]
    - '파워 오브 시베리아 1' 가스관은 2019년에 가동 시작, 2023년에 연간 230억 ㎥의 수송 능력 달성

Populaire, https://www.fpop.media/
55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russian-oil-price-used-tax-calculations-rises-95bbl-april-highest-since-2026-05-04/(검색일: 2026. 5. 5)
56 전쟁이 8주를 넘어 몇 달간 지속되며, 휴전 이후에도 해협 통과량이 정상의 30%를 넘지 못하는 부분적 정상화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우, J. Sapir(2026), "Conséquences économiques du conflit au Moyen-Orient et l'impact sur l'économie de la Russie".
57 Jacques Sapir(2026), "Conséquences économiques de la guerre contre l'Iran (partie 2)", Fréquence Populaire, https://www.fpop.media/
58 T. Mitrova, V. Yermakov(2019), "Russia's energy Strategy-2035", Edudes de l'Ifri.
59 https://russiaspivottoasia.com/chinas-2026-2030-development-budget-to-purchase-more-lng-from-russia/(검색일: 2026. 4. 28).

〈표 2〉 2025년 러시아 가스 수출 시장의 구성

단위: 십억㎥

PNG(파이프라인) 수출		LNG 수출	
중국	38.8	중국	7.1
튀르키예	20.0	일본+인도+한국	8.8
EU	22.5	EU	15.1
합계	81.3	합계	31.0

자료: J. Sapir(2026), "Conséquences économiques de la guerre contre l'Iran", Fréquence Populaire; https://www.fpop.media/

- '파워 오브 시베리아 2(PoS-2)'에 대해서 2025년 중, 러, 몽골 간 가스관 건설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되었으나, 자금 조달 문제로 진전이 지연되던 상황

* PoS-2의 수송 능력은 연간 500억~800억 ㎥로 예상

– 러시아는 자원 채굴 및 가공 능력뿐만 아니라 북극 항로에 대한 통제권을 바탕으로, 전쟁 이전보다 지정학적·지경학적 측면에서 훨씬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전망

- 러시아에서 중국과 아시아로 직접 이어지는 에너지 수송망 확대, 북극권의 액화천연가스를 북극 항로를 이용하여 수송할 수 있는 대안적 해상 수송로 개척 추진
- 북극권, 동시베리아, 사할린 LNG 개발과 연계하여 쇄빙선급 수송선 건조 가속화와 이를 위한 가스 생산-조선-해운 간 수직통합형 기업 육성(가스 기업인 노바텍의 조선 사업 확장 등)

– (원자재) 아시아 국가로의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수출 확대를 넘어 질소, 요소, 암모니아, 황 등 반제품, 곡물 등 최종 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국으로의 입지를 구축하여 수출 확대 도모

- **또한, 위기의 완충 역할을 통한 수출 확대와 재정 수익 증대에서 더 나아가 세력권 확장이라는 정치·경제적 영향력 강화도 기대**

– 아시아로의 수출 확대는 경제적 동기를 넘어 영향권 확대라는 정치적 동기도 작용한 결과이며, 러시아는 BRICS의 연장선상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를 아우르는 농산물 및 비료 시장 구축 추진

– 물류(그림자 선단) + 금융(탈달러) + 시장(아시아) + 외교(이란 협력)를 결합해 서방과 분리된 자체 에너지-광물-식량으로 이어지는 블록의 구축·확장 모색

- 중국, 인도 등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장기 계약을 확대하고 달러 외 결제수단을 활성화하여 국제무역의 탈달러화를 유도함으로써 러시아 중심의 에너지 공급망 블록 추진

물류·에너지·지정학적 변화는 전쟁 종결 이후에도 구조적으로 고착화될 전망

-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단일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이 갖는 위험을 실증하였으며, 전쟁 종결 이후에도 글로벌 물류망의 구조적 재편은 불가역적으로 진행될 전망**

– 2023년부터 홍해 후티 사태로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통항량이 급감한 데 이어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되면서, 글로벌 해상 물류를 지탱해 온 주요 초크포인트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연쇄적으로 훼손

– 초크포인트가 재개통되더라도 그 신뢰성 프리미엄은 영구적으로 훼손될 것으로 예상되며, 걸프 산유국들 역시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영구적인 수출 경로 구축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물류망은 효율성 최적화에서 경로 안전성과 다중화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

- 전쟁 위험 보험료는 전쟁 전 대비 8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통과 선박에 대해 건당 100만 달러 이상의 통행료를 부과할 움직임.[60]

- **이번 호르무즈 사태는 특정 지역·공급원에 대한 에너지 집중이 갖는 위험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수입선 다각화가 전 세계적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로 부상**
  - 유럽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에서 수입선을 전환하였으나, 호르무즈 위기는 유럽의 에너지 취약성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지리적 전환에 그쳤을 뿐 구조적 전환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
    -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40%에서 11%로 낮추는 대신 해상운송 LNG의 수입 비중을 늘리면서 의존의 대상만 전환[61]
  -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수입선 다각화가 핵심 전략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우선순위가 비용 효율성에서 복원력과 공급 안보로 구조 전환 가속화
    - IEA는 복원력과 다각화를 우선시하는 국가가 변동성에 가장 잘 대응할 것으로 진단[62]
- **이번 전쟁은 중동 내 미국의 위상 변화와 역내 세력 지형의 재편을 촉진하고 있으며, 에너지·방위·외교·금융 등 복합적 영역에서 기존 질서의 재구성이 동시 진행**
  -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국-걸프 관계는 이미 경제적 거래 중심의 관계로 전환되어 왔으며, 이번 전쟁에서 미군 기지가 방패가 아닌 공격 대상이 되면서 1945년 이래 유지되어 온 '석유 대 안보' 교환 구도의 해체가 결정적으로 가속화
  - 걸프 국가들은 미국 군사 체계에 대한 독점적 의존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방위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행동 자유를 제약하는 독점 구조를 해소하려는 움직임
  - 이 과정에서 중국은 분쟁에 대한 직접 개입을 회피하면서도 점점 신뢰할 수 없는 미국의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미국의 지역 안보 보증인 역할을 대체하지는 못하나 걸프 국가들이 다층적이고 다각화된 안보 환경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심 파트너로 부상할 전망
  - 이러한 세력 지형 변화는 에너지 거래의 결제 구조에도 반영되어, 중국의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 확대, 러시아의 탈달러 에너지 거래, BRICS 차원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검토 등이 병행 진행

중동발 위험에 취약한 한국은 공급망의 지리적 다각화를 넘어서 복합적인 접근법으로 대응 필요

- **미국-이란 전쟁은 단일 충격이 아니라 기존의 지정학적 경쟁 구조를 심화하는 촉매로 작용**
  - 각국은 단기적인 위기관리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 에너지 전략, 외교 관계와 연계된 대응방안을 모색
  - 중동 원유 의존도가 90%를 넘는 일본은 비축유 방출, 대체 조달, 보조금 등 긴급 대응에 총력
  - 중국은 에너지 수입선의 다각화와 국내 자원 기반을 통해 충격을 상대적으로 흡수하면서도, 위기를 에너지 구조 전환과 공급망 자립을 가속화하는 계기로 활용
  - 에너지 수출국인 러시아는 유가 상승에 따른 재정 수입 확대와 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전환 가속화

60 https://www.spglobal.com/energy/en/news-research/latest-news/shipping/033026-war-risk-insurance-cost-off-highs-but-still-elevated-in-persian-gulf;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6-03-24/iran-charges-some-ships-hormuz-transit-fees-for-safe-passage(검색일: 2026. 5. 8).

61 https://www.euronews.com/business/2026/03/06/which-eu-countries-are-most-exposed-to-the-lng-supply-disruption; https://shalemag.com/europe-gas-supply-shift-2025/; https://gcaptain.com/europe-swaps-russian-gas-dependence-for-u-s-lng-reliance-as-middle-east-turmoil-tightens-squeeze/(검색일: 2026. 5. 13).

62 https://www.iea.org/news/global-shocks-have-driven-a-surge-in-energy-policy-activity-and-government-spending(검색일: 2026. 5. 8).

〈표 3〉 미국-이란 전쟁의 영향 및 대응의 국별 비교와 시사점

	영향	대응 및 전망	시사점
일본	- 원유 및 나프타 공급 부족 심화 - 석유·석탄, 전력, 화학 산업 직접 영향 - 플라스틱, 고무, 철강 등 생산 감소	- (단기) 비축유 방출, 대체 조달 확보, 유가 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 (중장기) 에너지·원자재 수입원 다각화, 안보전략 재검토	- 유사한 에너지 수입 구조를 가진 한·일 간 위기 대응 및 해외 자원개발 협력 확대 가능 - 일본의 긴급 대응 방안 및 정책 동향 참고
중국	- 부분적 에너지 자립으로 거시적 충격은 제한적 - 석유 가치사슬 하류의 취약성 확대 - 헬륨, 황 등 일부 산업재 공급 차질	- (단기) 가격 임시 통제, 상업 비축유 사용 승인, 에너지·원자재 수입원과 수송로 조정 - (중장기) 에너지 전환과 공급망 자립, 위안화 영향력 강화 가속화	- 에너지 수입선·에너지원·수송로의 동시 다각화가 위기 대응력의 증진에 중요 - 핵심광물·비료 등에 대한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에 대비한 조달 다변화
러시아	- 석유 및 가스 가격 상승과 수출량 증대, 중동산 원자재 대체 수출 증가(비료, 헬륨, 알루미늄 등) - 국제남북운송회랑(INSTC)을 통한 물류 운송 차질	- (단기) 확대된 국가 재정 수입으로 러-우 전쟁 공세 강화, 아시아 수출 확대 추진 - (중장기) 에너지·원자재 시장 중심으로 '아시아로의 전환' 가속화, 지정학적 영향력 강화 기대	- 제재 위험을 감안한 선별적 한-러 협력 강화로 중동 의존 석유, 가스, 원자재 수입처 다변화 - 북극항로 및 북극권 개발 분야 한-러 산업협력 추진 - 에너지 수출국이 위기를 재정 확대와 세력권 강화의 기회로 활용하는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대비

자료 : 저자 작성.

- **한국은 중동 에너지 의존도와 해상 물류 구조 측면에서 취약함과 동시에 대체 공급원이나 자원 기반이 부족한 만큼, 이번 위기가 촉발한 구조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
  - 한국은 수입 원유의 70.7%, LNG의 20.4%, 나프타의 77%를 중동에서 조달, 수입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구조[63]로, 일본과 함께 이번 사태로 인한 위험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국가에 해당
  - 타국 사례에 비추어 보아 수입선의 지리적 분산만으로는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으며, 에너지·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대체 물류·수송로 확보,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산업안보 전략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
  - 나아가 에너지 교역 질서가 재편되는 가운데, 미국과의 동맹과 중국·러시아와의 경제적 상호의존이 공존하는 한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의 전략적 포지셔닝을 종합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점
    - 규칙기반 자유주의 질서의 쇠퇴와 상호의존 네트워크의 무기화가 뚜렷해지는 격동기에 전략적 자율성을 목표로 하는 장기적 국가전략을 강화할 필요
    - 기술, 산업, 지정학적 위치, 소프트파워 등 한국의 자산의 전략적 가치를 통해 미래 회복력 있는 경제·산업적 발전에 필요한 발전 공간을 확보하되, 중견 강대국으로서 독자적인 안보, 기술, 산업 및 공급망, 에너지·자원 등 분야별로 협력의 범위를 달리하는 유연한 접근법 필요

63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JSESSIONID_KITA=E302845DF2C7A6A2CDDB7EFBA5B760A1.Hyper?no=99563&siteId=1(검색일: 2026. 5. 8).

저자

임소영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연구위원 | sylim@kiet.re.kr | 044-287-3133
빙현지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 anissabing@kiet.re.kr | 044-287-3950
김계환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kevinkim@kiet.re.kr | 044-287-3019
최정환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부연구위원 | choijeo86@kiet.re.kr | 044-287-3101
박소희 글로벌산업협력연구실 연구원 | shpark@kiet.re.kr | 044-287-3850

KIET 산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287-3114 | FAX 044-287-3333 | 홈페이지 www.kiet.re.kr

이 글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서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